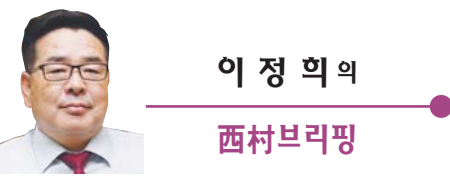


추석물가와 짜장면



민족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민들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한국물가 정보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9000원,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비용은 40만328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용은 최저 평균값이다. 이 때문에 벌써 추석 차례상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자 차례를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석유 제품이 크게 뛰고,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데, 통상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라 석달 만에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9%나 올랐다.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13% 넘게 상승했다. 신선식품인 채소 원가를 보면 지난 8월 초 껌잎 1kg 한 상자가 1만2000원에서 9월에는 2만원, 열갈이 배추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미나리 한 단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열무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뛰었다. 신선 식품 뿐만 아니라 식용유도 지난해보다 10% 오르는 등 식품 전반의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도 오름세다. 올해 4월 7.6%까지 올랐던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짜장면으로,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오른 7000원으로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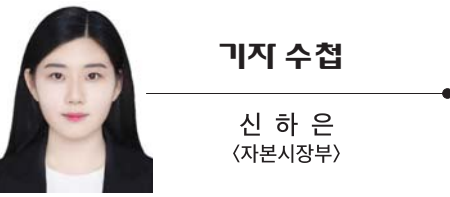
다른 외식 품목도 마찬가지다. 냉면과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 서민 외식 메뉴는 이미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피자(라지 사이즈) 한판과 치킨 1마리도 배달비 포함하면 3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은 소비자들은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 겁날 정도다.

당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걱정이다. 정부가 추석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놔지만 서민들은 깊게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다.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다. 먹고 사는 민생 물가가 무섭게 뒤흔칠수록 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배신감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편을 갈라 싸움질만 일삼고 있다. 나라 살림 꾸리고 정치하는 분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linh@metroseoul.co.kr

개미들도 눈을 낮출 때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고, 때마침 수익률 100%를 기록한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득을 맛보거나 증권가 소문에 솔깃했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당시 연간 100%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간 100% 수준의 수익률은 상당히 드문 사례임에도 다수의 투

자자들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개인 투자자의 손익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64.8%였지만, 2021년 73%로 상승했다. 총 거래대금도 2964조원에서 9885조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초보 투자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이 근래 속출했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면 오히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개미들의 수익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는 낮은 산투자 수준, 과잉거래,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투자행태는 다양한 행태적 편익과 연관돼 있어

향후 개인 투자자의 투자성과 제고 및 투자습관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당부와 달리 국내 증시는 과도한 거래회전율, 잦은 종목교체 현상을 유지해왔다. 테마주를 향한 투기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개미들의 ‘빛투(빛내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자본시장의 건전화 역시 금융당국의 숙제였지만 오히려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연간 10%만 나와도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을 오래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개미들도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고 실적에 기반한 논리적인 투자 태도를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godhe@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돛이다. 48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답이 없다. 60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2년생 하나를 뿌려서 열 개를 수확하는 운이 좋은 날. 84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한다.

37년생 잘못을 인정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4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3년생 잠시 주변을 돌아보라. 85년생 결혼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다시 결심.

38년생 멀리 가는 이사보다는 때를 기다리자. 50년생 병 주고 약주는 자식들이다. 62년생 비온 뒤방이 굳어지니 기다려보자. 74년생 실력이 없는 사람이 더떠들어 대니 시끄럽다. 86년생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휘두르듯 행동말자.

39년생 재산을 나눠주니 속빈 강정이 되었다. 51년생 호랑이가 죽으면 멋진 가족을 남기듯이. 63년생 지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75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87년생 결핵성의 질병에 유의.

4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52년생 새로운 기회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64년생 삶의 중심은 항상 신념이 있어야 한다. 76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8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41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도 좋다. 53년생 구설에는 묵묵부답(??不答)이 최선 일듯.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자중. 77년생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해라. 89년생 시간은 노력하다보면 통찰력을 준다.

42년생 얼룩진 옷은 비라만 본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54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 가는 큰 낭패. 6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8년생 의견이나 주장이 있어도 싸우지 마라. 9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43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5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67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은 것은 별로 없다. 7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열심히 움직여라. 9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4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 56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68년생 봄 처녀 마음처럼 설레는 하루. 80년생 구름이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2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45년생 잘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도 마라. 57년생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69년생 독감에 유의. 81년생 행복은 결과가 고유한 것이니 공부하라. 93년생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삼세지습 지우팔십삼歲之習 至우于八十.

46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 58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70년생 때를 다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82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 94년생 돼지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시러 나가라.

47년생 흉년에 땅을 사면 원망을 듣는다. 59년생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7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3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진정한 지혜. 95년생 껌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김상회의四季 전원주택 투자

지방에 전원주택을 예쁘게 짓고 살다가 팔려고 내놓은 지인이 하소연했다. 공들여 신축하고 5년밖에 안 된 새집인데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내놓았는데 그래도 문의조차 없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란다. 십여 년 전에는 전원주택이 인기 좋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꺾일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라고 부르는 시골의 주택들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한다. 문제는 팔리지 않고 곳곳에서 매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한때 은퇴자들의 꿈이었다. 평생 시달리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트렌드가 바뀌었다.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 전원주택은 도시 사람이 살기에 편하지 않다. 집 주변 청소와 마당 관리는 물론이고 물건이 고장이라도 나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두 고된 노동이 된다.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 가기도 어렵다. 금전적으로 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도시 아파트는 사이클을 타고 집값이 오르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기까지 한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가격이 힘을 받지 못한다. 가끔 은퇴한 분이 전원주택 투자를 물어보곤 하면 최근의 사례들을 들려드리곤 한다. 직접 신축할 때도 땅 구매나 지목 변경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곤 한다. 현실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이 꽤 있다. 어떤 투자든 어렵다. 그중에서도 전원주택은 거주와 투자 어느 측면이든 조심해 조심해 거듭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혁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3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1		
		2	4	3	6
	4	6		9	1
	2				7
3		7			9
	9				1
	1	8		3	4
		3	5	9	8
			4		

		5		7	3
	9				5
1			5	3	
7		6	7	9	1
					5
		1	2	6	4
9			1	2	
	6				1
		2		8	5

정답

6	8	2	1	7	9	3	2
1	2	8	6	9	5	8	7
5	9	7	2	8	2	1	6
9	1	2	8	2	8	7	6
7	6	9	2	1	2	8	8
8	2	8	7	9	6	1	2
8	8	1	9	6	2	9	7
2	6	9	8	8	7	2	1
2	7	9	2	1	9	6	8

9	6	9	2	8	7	2	1
7	1	2	9	6	8	2	9
8	8	2	2	9	1	7	6
6	2	7	9	8	2	1	9
9	2	9	7	1	8	6	8
8	8	1	6	9	2	9	7
2	9	6	8	7	9	8	1
2	9	8	1	2	9	8	7
1	7	8	2	6	9	2	9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